

광주·전남 GRDP 실질성장을 하위권

<1인당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광주 4% 전남 3.5% 전국 10·13위 그쳐**전남 8년새 114.7% ↑ 증가율은 전국 최고**

전남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 성장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전국에서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호남권 지역내총생산 추이'에 따르면 2008년 전남의 1인당 GRDP는 2940만원으로 8년 전 1370만원보다 114.7%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2위 충남(91.4%), 3위 경남(81.8%)에 비해서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의 1인당 GRDP는 2000년 950만원에서 2008년 1500만원으로 58.2%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평균(64.8%)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GRDP는 소득으로 지역경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 지난 2008년 광주는 21조7000억원, 전남은 52조4000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광주는 65.6%, 전남은 88.2%가 증가했다. 광주는 9위, 전남은 19위, 5%, 2008년 -6.7% 등 변동이 심했다.

또 농림어업은 연평균 -4.9%로

하지만 연평균 GRDP 실질성장을 은 광주가 4.0%, 전남이 3.5%로 전국평균(4.4%)을 밀어서 광주는 10위, 전남은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충남은 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7.8%), 경북(6.4%), 경남(5.3%), 인천(5.1%)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대비 2008년 GRDP 비중은 광주가 2.1%, 전남이 5.1%로 2000년과 비교해 광주는 0.1%포인트 감소하고 전남은 0.5%포인트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광주는 서비스업이 2000년 이후 2008년까지 연평균 3.5%, 제조업은 연평균 5.3%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제조업은 2005년 19.5%, 2008년 -6.7% 등 변동이 심했다.

또 농림어업은 연평균 -4.9%로

2001년(0.2%)과 2006년(2.8%)을 제외하고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남은 서비스업이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건설업은 연평균 5.7%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07년 15.2%, 2008년 -4.4% 등 변동이 심했다.

농림어업 역시 연평균 0.9%로 소폭 성장했지만 2002년 -8.4%, 2004년 8.6% 등 변동폭이 커졌다.

산업구조는 광주가 서비스업(66.3%)과 제조업(24.4%)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남은 2008년 제조업 비중(40.4%)이 서비스업 비중(39.5%)보다 높아졌다.

농림어업 비중은 광주·전남 모두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과 선물하며 사과하세요”**

21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농협과 한국사과연합회가 개최한 '2010 애플데이' 행사에 시민들이 껌질째 먹는 인심사과를 시식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애플데이'는 10월24일로 '둘(2)이 서로 사(4)과한다'는 의미로 지난 2002년 정해졌다. /연합뉴스

귀하신 채소들 서민품으로 돌아온다

배추·대파 등 가격 급락…김장철 안정세 전망

한 때 포기당 1만2000원까지 폭등했던 배추를 비롯해 대파, 무 등 채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배추는 산지 출하량이 늘어난데다 중국산 배추 유입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21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경

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배추 도매가격은 kg당 10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3500원에서 정점을 이룬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5월 2600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 1900원, 18일 1400원, 19일 1200원, 20일 1100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도 17일까지 6450원에 판매했던 배추를 포기당 38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다. 배추값은 가을배추 작황이 좋아 김장철인 12월에는 지난해 수준까지 떨어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등했던 다른 채소류 가격도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판매중인 무(1kg)는 일주일 사

이 20% 하락해 4000원에 거래됐으며 한달 전 1만2500원이던 시금치(1kg)는 64%나 내려 4000원에 판매됐다.

애호박(1kg)은 1500원, 풋고추(100g)는 500원으로 한 달 사이 47.8%, 37.5%씩 하락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가족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도난사고 생겨도 보상 못받아

신용카드를 배우자 등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도난 사고를 당하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자체 발간하는 계간지 '여신금융 가을호'에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08년 6월 B카드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 C씨에게 양도했다. C씨는 올해 4월 주

차 도중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카드를 도난당했고 누군가 이 카드로 2곳의 가맹점에서 221만원을 사용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B카드사는 누군가 A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 가맹점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귀책비를 41.

2%를 차감한 매출대금을 지급했고 A씨에게는 카드양도에 의한 본인 과실을 이유로 귀책비를 58.8%를 결제

그러나 A씨는 일부라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감원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B카드사는 신청인의 추가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B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에는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를 가족에게 양도해 사용하지 말고 필요하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도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불법 채권추심·고금리·대출사기…

사금융 피해 크게 늘었다

올해 사금융피해로 인한 상담건수

올해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임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사금융에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은 5974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총 상담건수(6114건)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천만명 시대

17개월만에 8조원 육박

서민 내집마련 수단 인기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수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1년5개월만에 1000만명으로 확장됐다.

금융결제원과 국토해양부는 10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약 1007만명으로 가입자수 천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가입금액으로는 약 8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5월 6일 첫 판매에 들어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합한 상품이다.

하나의 통장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상품 출시

첫 날에 전국적으로 226만명(사전에 약 포함)이 가입하는 기염을 토했고,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식 집계가 끝난 9월말 현재 이 통장의 가입자수는 총 998만8412명으로 전 달(988만2797명)에 비해 10만 5615명 증가했다. 가입금액은 7조 7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수는 총 199만5994명으로, 2003년 2월 말에 200만명(202만6572명)을 넘어선 이후 7년7개월만에 200만명 밑으로 줄었다.

청약예금 가입자수는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07년 2월말 295만9597명으로 최고조에 달한 뒤 그 해 3월부터 현재까지 가입자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수 역시 9월말 현재 70만3515명을 기록, 전 달(71만 8861명)에 비해 1만5346명 줄었다. 청약저축 가입자수는 총 175만8645명으로 전 달(178만3711명) 대비 2만 5066명 감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평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상상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광주·전남 체인본부 상담 ☎ 062-383-0029, 010-6625-0866

오픈 1층
광주광역시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명품 두부 **간장 야식 두부** **간장 두부**

가맹점 모집

※점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희소식! 전두부 자동 제조기 하나면 OK! ※ 콩관련 업종(기존식당) 재창업 및 업종 변경

전두부 장점

- 사포닌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270배!
- 이소플라본 전두부는 일반두부의 약 3배!

최근 복 랜? 콩을 통째로 미세분말하여 만든 두부로 식이섬유질(콩비지)과 미네랄 등 콩의 영양분 100%를 담은 최고 명품 두부를 말합니다.

사포닌 대두의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심장병, 당뇨병 예방 효과!

식이섬유 성인병 예방 및 변비 개선 효과!

레시틴 대두에 맛과 들어있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암, 심장병, 고혈압 등에 예방 효과!

이소플라본 식물의 배인에서 분리한 특수지방질, 이 성분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치매 예방 효과!

전두부와 일반두부의 비교분석

구 분	전 두 부	일 반 두 부
원재료	생대두, 미세분말	생대두, 파쇄분
두부제조시간	40분(간단)	10시간(복잡)
용수 사용량	기준두부 1/5	다수의 수질 / 방관증수 소요
비지 발생률	비지 발생 없음	두부의 120% 발생
폐수 발생률	폐수 발생 없음	대두의 10배 이상
생산성(대두 1kg)	대두의 800g	단백질 등 일부부문 전류
영양분	영양분 보존	영 10g / 300g
맛과 날세	고소하고 담백함	담백함
보존성	기준 두부의 10배 이상	3~4일

초보자 창업 제조공정이 간단하여 본사의 적극 기술 지원 창업 용이

소지본 창업 기반비, 로열티가 없다. 창업자금(소상공인, 리스) 지원 운영, 홍보 등 본사 적극 지원

고수익 창업 점포 선정부터 얕은 노하우 전수, 매뉴디(능성) 다양으로 인한 고수익, 본사 적극 지원

※ 100% 국내산 콩을 고집하는 명품 두부 기능성 두부(녹차두부, 카레두부, 흑두부, 쑥두부)

※ 최고 상권 디랑크 보유, 적은 형벌 ~ 큰 형벌 운영 가능

오픈 기준 지역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전주, 익산, 군산